

AI 전력수요 급증에… 29조 美 텍사스 발전소 투자 검토

산업부, 대미투자 프로젝트 협의중
6.4GW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전력판매로 '상업적 합리성' 부합

정부와 업계가 미국 텍사스 엔시날에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짓고 장기간 전력 판매 수익을 얻는 대미투자 첫 프로젝트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전력수요 급증과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대미투자 원칙에 부합하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에 6.4GW(기가와트)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 중이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미국 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붐이 전례 없는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골드만삭스 리서치의 최근 보고서는 “미국 내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향후 2년 내 현재의 2배 이상인 66GW~90GW급으로 급증할 것”이라며 오는 2035년 데이터센터가 미국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2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간 에너지 협력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뉴시스

특히 인프라 개발이 가장 활발한 텍사스주의 경우, 전력망(ERCOT)에 연결을 신청하는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만 240여 개에 달해 심각한 전력 병목현상을 겪고 있다.

한미 양측이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진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는 총 사업비 198억달러(약 29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

로젝트로 가스터빈발전 1.4GW, 가스복합발전 5GW 등 총 6.4GW 규모의 발전 시설을 설립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1호 투자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사업은 미국 현지 건설비 폭등과 고금리, 수요 불확실성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사

실상 무산 수순을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텍사스 엔시날 프로젝트는 발전소 부지와 세일가스 공급망이 이미 확보돼 있어,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해 빠르게 전력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가 특히 이 프로젝트를 최우선으로 검토하는 이유는 대미투자 원칙인 ‘상업적 합리성’에 부합하기 때문인 것이라는 분석이다. 엔시날 프로젝트는 부지 인근에 설립 추진 중인 5GW 규모의 대형 AI 데이터센터와 장기전력 공급 계약을 전제로, 24시간 끊임없는 전력을 공급하는 구조다. 현지에서는 전력수급 리스크가 없는 만큼 대미투자 편드는 연간 5%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22일 워싱턴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캐시 폴로(현금 흐름)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프로젝트가 더 나은 프로젝트”라며 “그런 부분에서 유리한 프로젝트가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라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해 “미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면서도 “1호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프로젝트가 확정돼 물꼬를 트면,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정부의 원전 용량 확대 정책에 발맞춰 원자력발전,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로 에너지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최근 개별기업에 맡겼던 원전 수출 방식을 정부의 수출을 기획,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다.

한편 대미투자 프로젝트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통한 재원으로 추진되며, 내달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국회 사전보고 등 절차를 거친 뒤 미국 측과 최종 협의 이후 진행된다. 투자 이후에는 매년 투자 현황과 성과를 담은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남동발전, AI로 ‘안전·효율’ 두 마리 토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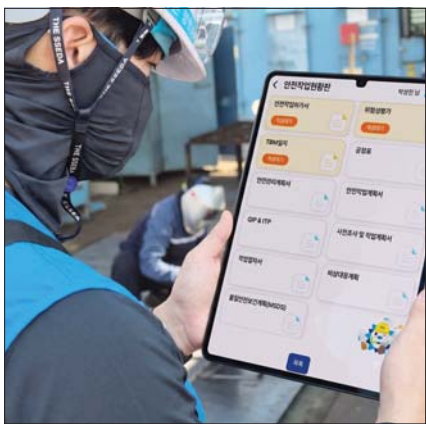
차세대 발전설비관리시스템 구축
업무절차 통합해 단계 약 40% 줄여

한국남동발전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 발전소 전환 및 현장 안전 관리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남동발전은 지난 11개월간 공들여 추진해 온 발전AX(인공지능 전환)의 결실인 차세대 발전설비관리시스템 ‘GENi 2.0’을 오는 7월 31일 공식오픈한다고 밝혔다.

2011년 첫 도입 이후 하루 평균 2500명이 접속해온 기존 ‘GENi’는 남동발전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남동발전은 이용자의 82%가 현장 실무자와 협력사 직원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철저히 현장 근로자들의 관점에서 시스템을 대수술했다.

우선 복잡하고 반복적이던 업무 절차를 하나로 통합해 전체 업무 단계를 약 40%나 획기적으로 줄여냈다. 이에 따라 현장 근로자들은 과도한 행정 피로에서 벗어나 본연의 안전관리와 정비 업무에 온전히



발전설비 관리시스템 현장 사용 모습. /남동발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발전소 현장의 최우선 가치인 ‘안전’을 대대적으로 강화했다. 신설된 ‘안전 모드-ON’ 기능을 통해 기존에 일일이 수기로 작성하고 출력·스캔해야 했던 143종의 현장 안전 서류를 시스템 내 전자서명 방식으로 100% 전환했다. 종이 없는(Paperless) 일터를 구현함과 동시에 작업자의 단순 실수를 원천 차단하여 한층 촘촘하고 견고한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스마트 팩토리로의 도약을 이끄는 AI·

빅데이터 기술도 대거 탑재했다. 기존 발전 데이터에 기상정보와 정비 이력 등을 AI로 결합·분석해 설비 고장을 미리 예측하고 작업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성했다. 이를 경영진과 현장 근로자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빅데이터 시각화 대시보드’로 구현해 발전소 내 모든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했다.

남동발전은 이번 ‘GENi 2.0’에 집약된 압도적인 기술력과 높은 범용성을 바탕으로, 향후 발전사 간 시스템 연계 및 통합 환경에 대비해 타 발전사까지 플랫폼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통합발전설비관리시스템 표준 플랫폼’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조영혁 남동발전 사장 직무대행은 “GENi 2.0은 AI 기반 차세대 발전설비관리 표준 플랫폼으로 나아가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전 사업소와 협력사가 새로워진 시스템 속에서 더욱 안전하고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발전 혁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가고 싶은 경마공원” 국민 아이디어 모은다

한국마사회, 정책제안 공모전

한국마사회가 이른바 ‘모두의 말문화’ 조성을 위한 대국민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기관 경영 및 말문화 확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공모전은 일상에서 느낀 생각과 아이디어를 마사회의 사업·서비스에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경마·승마 등 말산업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도 자신의 경험과 관심을 바탕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주제로 구성했다.

공모 주제는 ▲‘가고 싶은 경마공원’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국민의 일상 속 말문화’ 확산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등 2개 부문이다.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하면 된

다. 공모 기한은 오는 8월17일이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자는 마사회의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국민체감도, 실현가능성, 혁신성,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1차 제안서 서면 심사를 거쳐 2차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총 6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해 한국마사회장상과 도합 55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최종 결과는 2차 심사가 예정된 9월12일 현장에서 발표한다.

마사회는 공모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민이 상시적으로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정책제안 소통창구를 구축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부산항만공사, 스마트항만 전략 공유

‘2026 IAPH-KMI 포트 포럼’ 참석

부산항만공사가 디지털 전환 등 부산항의 미래항만 설계 관련해 대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와 협력도 강화해 나간다는 취지의 홍보 활동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26 IAPH-KMI 포트 포럼’에 참석해 부산항의 디지털 스마트항만 구축 전략을 발표했다.

이 포럼은 국제항만협회(IAPH)와 한

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행사로, ▲탈탄소화 ▲디지털화 ▲효율성을 주제로 열렸다. 세계 각국의 항만 관계자와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이 행사에서는 항만의 지속가능성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 및 기술, 우수사례 등이 공유됐다.

발표자로 나선 구자림 부산항만공사 글로벌사업단장은 ‘부산항 디지털 스마트항만 구축 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의 화물가 시정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공사는 부산항의 통합물류정보플랫폼인 ‘체인포털’에서 제공하는 차량반출입 예약시스템(VBS), 환적운송시스템(TSS), 전자인수도증(e-slip), 환적모니터링 시스템(Port-i) 등 주요 디지털 서비스를 소개했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항만의 디지털 전환은 운영 효율성 제고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과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앞으로도 부산항의 디지털 혁신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글로벌 항만과의 데이터 협력을 확대해, 스마트항만 분야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협, 폭염 대응 과채류 수급안정 대책 시행

소비 활성화 등 12.4억 투입

농협경제지주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2026년 하절기 과채류 수급안정 대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여름철 폭염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과채류의 안정적인 생산 및 소비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농작물 생육관리(7억 4000만 원) ▲소비 활성화(3억 원) ▲출하 조절(2억 원) 등에 총 1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산과 유통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 앞서 지난 2개월간 농작물 생육 관리를 위해 농가에 여름철 시설하우스 고온 피해 예방용 차광도포제를 공급했다. 오는 8월31일까지는 약제와 영양제 등 필수 농자재를 추가로 지원해 폭염으로 인한 생육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전국 각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토마토·애호박 등 주요 과채류를 최대 40% 이상 싼값에 판매하는 행사도 실시했다. 할인 행사는 이달 29일까지 이어진다.

주산지 출하조절 대책도 마련했다. 토마토와 애호박, 가지, 오이, 청양고추 등 주요 품목의 도매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시를 이상 지속될 경우 수급안정사업 참여 농가에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또 가공용으로 전환 출하하는 농가에는 공급가의 10~15%를 보전해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주양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이번 대책이 여름철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농협은 정부와 함께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